



4면

중국 길림성교육청과 우호 협력 강화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음 5월 21일) 제3532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25일 익산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에서 열린 '제1회 전북포럼'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한춘 차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아르헨티나 에밀리아노 와이셀피츠 대사, 주광주 중국영사관 구 징치 총영사, 케냐 킵코스케이 토로이티취 부대사, 뉴질랜드 대사관 자문관, FAO 한국 협력사무소 셸야오 탕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농생명 분야 강점 살려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

김관영 도지사, 시·군 방문 - 정읍시

도정 운영 방향 설명 · 정읍시민 의견 청취

정읍시립요양원 · 쇠고을시장 찾아 현장 살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이라는 슬로건으로 25일 정읍시를 방문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관련사진 3면)

이날 김 지사는 정읍시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기자회견을 찾아 지역의 분위기와 여론을 경청했다.

이어 시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정읍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정읍-전주-익산 3개 시군을 중심으로 한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북형 바이오산업이 미래 먹거리 전략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읍이 가진 농생명 바이오 분야

강점을 살려 바이오 특화단지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후 정읍시립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고생한 돌봄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입소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봉사 일선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와 함께 쇠고을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와 만찬을 갖고 생생한 민생물가 현장을 살피기도 했다. 김 지사는 견어물, 생선, 과일 등을 직접 구매하고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을 방문해 주신 김관영 도지사에 감사드립니다"며 "정읍이 가진 강점을 살려 더욱 특별한 전북자치도를 만드는 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생명경제의 미래 그리다'

익산에서 국내외 전문가가 모여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도약을 위한 농생명산업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익산시는 '제1회 전북포럼'이 25일 익산시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에서 농생명산업 관련 기관 및 대학 관계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원광대학교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농생명산업 혁신으로 생명경제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개막식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개회사와 정현을 익산시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의 환영사로 시작했다. 한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조재호 농촌진

### '제1회 전북포럼' 개막

전문가 특별 · 기초연설

좌담 · 세션 등으로 진행

농생명산업 혁신 방안 모색

오늘 농생명산업 현장

방문 프로그램 등 진행

홍청장,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개막식에 이어 본 행사에서는 전문가의 특별 · 기초연설, 좌담, 2개의 세션이 진행되며,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특례와 관련한 해외 우수 사례를 공유

하는 국제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먼저 빈센트 장 마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혁신국장(이탈리아)과 갈리다스 세티 노스다코타 주립대 교수(미국), 김홍국 하림그룹 대표가 '농생명산업의 미래와 발전 방향', '글로벌 농생명산업의 허브' 등을 주제로 특별 · 기초 연설에 나섰다.

좌담에서는 신동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등이 농생명산업의 혁신으로 전북자치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주제별 세션은 국내 · 외 농생명분야 유수의 전문가가 참석해 농식품 가치사슬(Value Chain) 혁신방안과 농생명산업 혁신체계 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육성, 지역 특화 식품산업 육성, 농생명산업 디지털화, 농식품산업 클러스터의 혁신 체계, 전북 농생명 산업생태계 고도화 등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농생명산업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대담이 오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농생명 바이오 산업을 혁신적으로 주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익산에서 제1회 전북포럼을 개최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농생명 산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찾고 그린바이오 중심 도시로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포럼 다음날인 26일에는 국외 연사, 대사들이 함께하는 농생명산업 현장 방문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 도내 이차전지 업체 화재 대책 현장점검

내달 9일까지... 경기도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발생 따라

전지 업체 45개소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현재 가동 중인 이차전지 기업 32개소를 대상으로 소방본부의 긴급 화재 안전조사와 소방 안전교육이 집중 실시된다.

이 가운데 도내 대규모 사업장 3곳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고용부, 환경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합동 조사도 병행된다.

이와 함께 현재 건축중인 업체 5곳을 비롯해 설계나 입주예정인 기업 등 13개소에서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전북소방본부가 출범시킨 '119 윈스톱 지원단'이 시설 완공 때까지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도 긴급 현장점검을 벌이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하며 사업장내 위험요인과 구역에 대한 안전표지판

부착 등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기업의 실천 의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재해예방과 관련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다시 한 번 상담한 뒤 필요할 경우 '중대재해 예방 자문단'을 통한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환경안전 패키지 지원 및 개선을 위한 예산 1억6,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함에 따라 올 하반기 화학기업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업종별 · 공정별 유해 · 위험성 평가 등 정밀진단과 개선 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 산악레저 스포츠 인프라 조성

전북자치도, '장수 K-샤모니' 민관협력 공모 선정  
국비 50억 확보... 2026년까지 118억원 투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공모에 장수군 'K-샤모니(대한민국 산악레저의 성지 장수군)' 사업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된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민간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수군은 산악레저 전문기업인 블랙야크와 한국 아웃도어 스포츠 산업협회와 함께 손을 잡고 공모를 준비했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국비 50억원을 확보, 2026년까지 도비 10억원, 군비 40억원, 민자 18억원 등 총 1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K-샤모니' 사업은 블랙야크가 갖고 있는 산악레저 스포츠 성공노하우와 전문성을 장수지역이 가진 풍부한 산악인프라 자원에 적용해 장수군을 대한민국 산악레저의 성지로 조성한다는 프로젝트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